

경제적 이유로 인한 타의적 선택, 서구 딥크족과는 달라

한지붕 세가족의 혜숙이와 용범이는 신세대 부부를 대변하고 있다.

맞벌이, 적당한 선에서 이루어지는 가사분담, 우리것 보다 자기 것을 챙기는 사고방식, 어느 세대보다 많은 부부 대화 등 여러가지 특징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이 바로 아이가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혜숙이는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아이는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책임질 수 있을 때'란 바로 집장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혜숙이와 용범이는 월급의 많은 액수를 집장만에 쏟아붓지만 예전의 부부들처럼 즐기는 문화를 외면하지는 않는다.

가끔 영화나 연극을 즐기고 저녁 외식 후에 함께 퇴근하기도 한다.

분명 변화하고 있는 신세대 부부의 생활패턴을 감지하기란 어렵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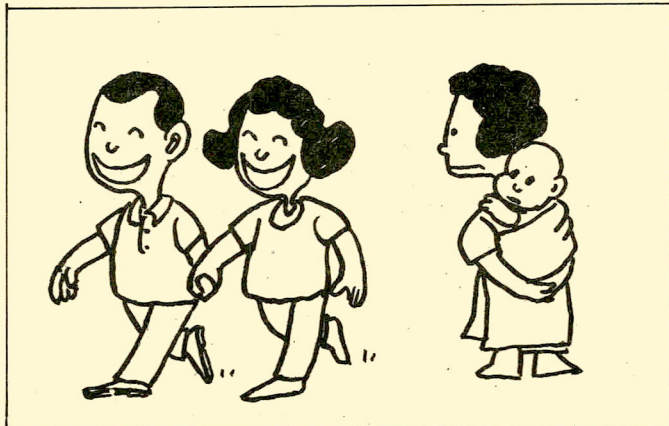
최근 삼성전자 가전부문 생활소프트팀이 5개 대도시에서 사는 25~54세의 기혼여성 1천명을 대상으로 세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세탁기를 돌리는 사람은 딸이 14%, 남편 9%, 시어머니 7%, 주부 70%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통계는 평균치이지만 나이가 적을 수록 세탁에 참여하는 남편의 비율은 높아진다. (25+29세가 11.1%, 50~54세가 4.9%)

사보를 만들고 있는 이은주(27) 씨는 출판사에 근무하는 남편과 1년 전에 결혼했다.

집값문제로 직장은 서울이지만 집은 인천 부평에 마련해 언제나 시간이 빠듯해 가사노동의 분담이 필수적이다.

"세탁은 남편 몫입니다. 기계



작동이라는 점에서 부엌일보다는 달가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 씨 부부는 가사노동 외에도 퇴근 후 일본어 학원을 함께 수강하는 실속파.

이들 부부 역시 아이는 '생활이 안정된 후'로 미루고 있지만 또다른 사례인 김혜경(28) 씨는 미국에서 유행하는 딥크족처럼 자녀출산 계획이 없다.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고 맞벌이를 하며 돈과 출세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딥크족(double income, no kids).

김 씨 부부는 '돈과 출세'라는 점보다는 부부의 '자유로운 생활'을 이유로 자녀를 출산하지 말자고 합의했다.

남편은 사진전문가이고 자신은 문학에 뜻을 두고 있다고 소개한 김 씨는 시어머니 살아 계시지 않으며 남편 또한 장남이 아니라는 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즉 서구에 비해 대잇기 의식이 강한 우리 현실은 차남일수록 부부중심의 사고가 수월하다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시부모를 모시지 않는 부부일수록 가사분담 등이 수월하다는 사실과 같은 맥락인 것이다.

박미영(35, 가명) 씨는 결혼 7년째이지만 아직 아이가 없고 두 부부는 각자 노동단체, 재야 단체에 일하는 소위 운동권 부부이다.

우리나라 현실이 만든 독특한 신세대 부부인 셈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경제적 문제이다.

"부부가 일하는 곳 모두 보수가 극히 적습니다. 최저생계비도 안되지요.

우리 부부는 소위 운동권 부부들이 아이를 가지면서 한쪽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던 일을 중단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를 갖지 않고 두사람 모두 각자 활동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기존의 세대들과는 다르게 결혼과 출산을 동일화시키지 않는 신세대 부부들에 대한 사회의 반응은 엇갈린다.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측면과 변화하는 새로운 가정의 모습이라는.

그러나 아이를 갖지 않는 대부분의 신세대 부부들은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라는 조건을 달아 서구의 딥크족과는 구분된다.

현실이 신세대 부부들을 딥크족으로 몰아간다는 인상이 짙다. (김문란 기자)